

연간보고서



교황청 재단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결과도 마찬가지로였기에 인간 역사 안에서 운명의 해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너그러움이 있었기에 ACN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프로젝트 지원에 1억 유로가 넘는 원조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파트너와 우리 사목 원조기구의 모든 동료 직원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목활동과 연계된 원조 지원금 중 약 10%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곳의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모든 신자와 집을 잃은 난민들에게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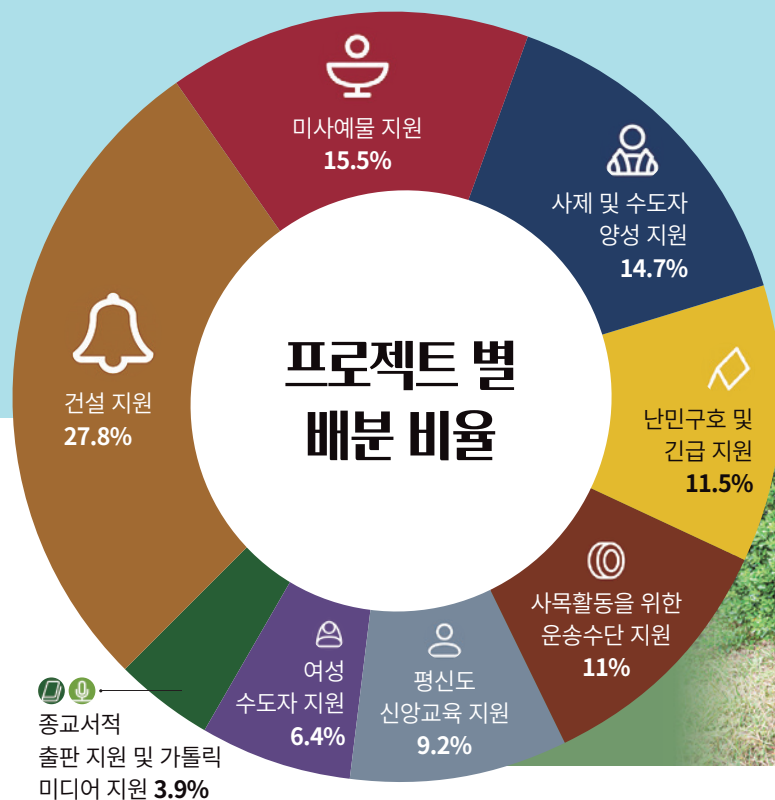
와 지원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 늘어난 지원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목 원조사업에 임하였고, 박해와 시련 속에 억압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외침을 너그러운 후원자들이 듣게 되었음에 감사의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지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도움이 계속 필요할 미래를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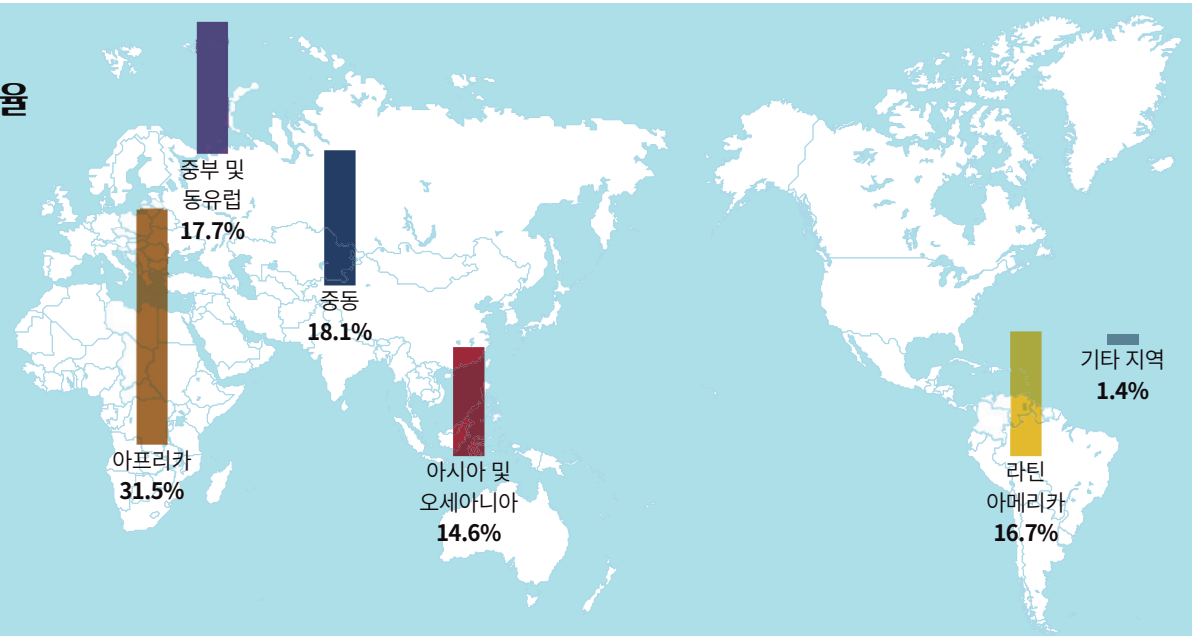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이 전해진 곳



지역별 원조 비율



2022년 한 해 동안 ACN은 5,702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404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교구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8개 국가, 1,119개 교구가 ACN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요청은 총 7,571건입니다. 2021년보다 789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85%에 해당하는 5,70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ACN이 지원한 가장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300유로 상당의 콜롬비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이라크에서 부분적으로 파괴된 본당 교육관을 보수(99,373유로 지원) 공사입니다. 또한, 교리교사 및 평신도 활동가 33,821명을 지원하였고, 약 130만 권의 종교 서적 및 출판물 중 절반 이상을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지원하였습니다.

-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전 세계 36만 4,695명의 후원자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총 수입 145,995,491유로(약 1,985억 원)
- 전 세계 128개국의 ACN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을 통해 5,702건의 프로젝트 지원
- 지원비의 82.6% 사목활동 연계 지출

건설 지원 972건

ACN이 지원한 모든 건설 지원의 3분의 1 이상이 성당과 경당이었습니다. 또한, 수녀원, 신학교, 본당 사제관, 사목 센터의 건설과 개보수도 지원하였습니다. 아프리카가 전체 건설 프로젝트의 37%로 가장 많았지만,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중동에서도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예물 지원 1,872,240회

2022년에 약 190만 대의 미사가 ACN의 지원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17초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ACN 후원자분들의 기부와 지향으로 미사가 거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사제 410,219명 중 40,730명이(전 세계 사제 10명 중 1명) ACN의 지원한 미사 예물로 사목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 지원 13,836명

2022년 전 세계 신학생 8명 중 1명이 ACN의 양성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지역은 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7,894명)였고, 라틴 아메리카(2,693명), 아시아(1,622명), 동유럽(1,409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 수도자 사도적 활동 및 훈련 지원 20,909명

ACN은 전 세계 여성 수도자 619,456명 가운데 30명 중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전년도에는 34명 중 1명 지원). 관상 수녀회와 활동 수녀회 소속 수도자 모두 ACN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청원 및 수련 등의 양성과정과 피정을 위한 지원도 받았습니다.



사목활동을 위한 운송수단 지원 1,253건

2022년에 ACN은 사목활동을 위해 자전거 406대, 자동차 564대, 오토바이 252대, 보트 16척, 버스 11대, 트럭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지역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입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353건

2022년 한 해 동안 ACN은 난민과 빈곤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제, 수도자, 신학생 및 기타 교회 봉사자들을 돕기 위해 약 950만 유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ACN 사목활동 연계지출 총액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 지출 상세내역

- 총 지출 금액 1억 4,870만 유로(약 2,021억 원)
- 사목활동 연계 지출 82.6%(1억2,280만 유로, 약 1,670억 원)
- 기금 모금 활동 10.7%(1,590만 유로, 약 216억 원)
- 행정(운영비) 6.75%(996만 유로, 약 135억 원)
- ACN 연간보고서는 PwC의 감사와 검토를 받았습니다.
- 환율: 1유로=1359.6원 적용 (2022년 평균환율)

⊕ 사목활동 연계 지출

- 전체 신청 사업 7,571건 중 5,702건 승인
- 사업 지원(사목활동 연계지출의 87.2%)
약 107,104,446유로(약 1,456억원)
- 정보, 복음화 및 옹호 활동(사목활동 연계지출의 12.8%)
약 15,721,754유로(약 214억원)

너그러움에서 나온 기록

ACN 설립 75주년을 맞아 후원자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다시 한번 모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은 전년도인 2021년보다 약 1,300만 유로가 더 많은 총 145,995,491유로를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원조 요청을 받았는데, 가톨릭교회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적, 심리적, 물질적 필요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 지원금의 약 10%를 우크라이나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 및 동유럽에 대한 지원도 17.7%로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폭력의 확산으로 이 지역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ACN에 우선되는 사목 원조 지역이며, 2022년에도 전체 원조의 31.5%를 지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3.9%의 사목 원조 지원을 받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지역 사회 안에서 소수 종교의 신자로서 차별은 물론 노골적인 박해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중동(18.1%)은 그리스도인들의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긴급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시리아와 레바논에 집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원

은 16.7%로 전년도인 2021년의 13.8%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주요 도전과 과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



주, 종파 및 반교회적인 정부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ACN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 지원은 전체 사업 지원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프로젝트별 배분 비율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건설 사업이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를 위한 양성 지원은 24%로 2021년도의 19.5%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사제들의 미사 예물과 수도자들의 생계비 지원이 전체 사업 지원금의 2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사목 활동 지원(운송수단, 종교 서적 출판지원 및 가톨릭 미디어 지원)과 난민구호 및 긴급 지원으로 나뉘어 사용되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하느님 이끄심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